

교양영어프로그램에서 영문법교육의 필요성: 학습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신희재
성결대학교

Shin, Hee-Jae. (2011). The need of English grammar instruction in general English program: On the basis of learners' perceptions. Modern English Education, 12(1), 157-176.

The present study aimed at finding out whether English programs should offer English grammar classes to university students to develop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Two groups of students majoring in different areas were administered a survey, which asks about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s grammar instruction, using a self-rated five-point Likert type scale.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reshman and sophomore groups a Pearson' Chi-square test and a t-test were utilized.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indicated that both groups wanted to take English grammar classes to attain proficiency and accuracy in language production. It seemed that they felt that a grammar base is a solid place from which to build knowledge of English. However,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sophomore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English grammar class they took last year, which means it should be improved for optimal language learning. To meet students' expectation, it is necessary that English teachers should present efficient approaches to teaching grammar within improved methodological frameworks.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direct method /grammar-based teaching/
/의사소통교수법/직접교수법/문법기반교수]

I. 서론

1970년대 초반 전문가와 학자들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문법에 기초한 번역 중심의 교육방법에서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구사력 중심의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Sysoyev, 1999). 이로 인해, 영어교육의 관심 대상이 각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보다는 의미 중심의 언어기술에 초점을 둔 방법론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영어교육도 전통적으로는 읽기와 문법에 중점을 둔 교육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는 각 대학에서 영어의 말하기·듣기 기술에 중점을 둔 의사소통언어교수법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계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실용성이 부각되었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많은 대학들이 원어민영어교수의 수업을 개설하는 등 대학 내 영어교육방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양영어 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대학도 1995년부터 읽기 위주의 영어교육을 지양하고, 1학년 1학기에는 영문법,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3학기 동안 의사소통 영어교육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영어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문법을 가르치는 것은 영어문법의 이해가 영어실력 향상에 기초가 되고, 그 문법을 바탕으로 이후 수강하게 되는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까지 모든 1학년 학생들은 1학기에 영어필수과목으로 ‘영문법의 이해’라는 강좌를 이수하였었다. 그러나 2010년 봄학기부터 학교 정책에 의해 영문법 과목의 학습효과나 학습자의 견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없이 영문법 과목이 폐지되고, 교양영어 과목을 모두 말하기 중심 과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영문법을 한 학기의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가 또는 필요한 것인가를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 집단으로는 영문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2학년 학생들과 수강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영문법교육의 문제점과 중요성이 무엇인지 학습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더 나은 영문법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문법이란 한 언어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가에 대한 규칙을 기술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문법규칙을 배우지 않고 언어에 노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제1언어를 습득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제2언어를 배울 때에는 그 언어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자연스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면 자연스런 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2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문법규칙에 대한 학습없이 제2언어의 습득이 가능할까? 언어습득, 특히, 제2언어 학습에서 문법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문법교육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언어의 기본적인 규칙인 문법교육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법교수에 반대하는 입장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s*(1957)의 출간으로 언어학계에 일어난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언어습득이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언어습득장치와 아이의 언어학적인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인간이 원래 언어학습능력, 즉 문법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국어 습득뿐만 아니라 제2언어 습득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그러한 견해의 근거로 언어 발달 순서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Chomsky의 영향과 함께 Krashen의 *Monitor Model*(1981)의 언어습득 가정에 의하면, 학습자의 언어능력은 그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등과 같이 언어사용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저절로 문법을 익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방법에 의해서 직관적인 수정에 도달하게 되므로 명시적인 문법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Krashen은 습득과 학습을 구별하여 습득은 타고난 언어능력으로 저절로 익히는 것이고, 학습은 배우는 교육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2언어도 성공적인 사용은 학습이 아니라 습득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보편문법의 개념과 함께 인간의 선천적인 언어능력이 교육이론가로 하여금 언어학습의 자연주의 이론을 채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연주의자들은 문법의 명료한 교수뿐만 아니라 어휘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문법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자연적 접근법의 중심이 되었다. 문법교육과 명시적 규칙 제시를 거부하고 대신 학습자가 알기 쉬운 언어자료에 여러 번 노출되면 타고난 언어능력에 의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러한 언어자료를 언어산출물로 전환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직접교수법도 문자언어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하기 기능을 우선시 하였다. 어린이가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면 모국어의 문법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언어에 몰입됨으로써 문법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직접교수법은 자연적 교수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문법구조의 교수요목을 따르지 않고 명시적인 문법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ysoyev, 1999).

의사소통적 언어교수법의 핵심인 의사소통적 접근법도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문법 이상을 아는 것으로 보았다. 문법적 지식은 의사소통능력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활동에 참여하면 문법이 무의식적으로 습득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법규칙을 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제1언어 교육에서 영문법 수업이 커리큘럼에서 사라지고 ESL 수업에서도 제로문법(zero-grammar)운동이 있었다.

2. 문법교수에 찬성하는 입장

몇 년의 제로문법 전쟁 후 결국 언어 교육분야에서 문법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어휘의 잘못된 나열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가 있지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 규칙이 결여된 발화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언어학습과정 중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형이나 규칙을 알아야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단지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력 언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제2언어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기본구조를 강조하는 형태중심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은 계속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Lightbown & Spada, 1999).

제2언어 연구자나 방법론자들은 의사소통에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 입력의 노출에 의해서만 문법능력에 도달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Canale & Swain, 1980; Larsen-Freeman, 2003; Shepherd, 2005). 특정한 종류의 언어지식과 기술, 즉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발표나 쓰기 등은 순수한 의사소통접근법의 자연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논의한다. 높은 수준의 능력과 정확도를 요구하는 말하기와 쓰기 분야에서도 고도의 언어능력과 수행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도와 교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제2언어 교육에서 다시 문법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Ellis(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다.

.... Borne out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grammar teaching. Further, there is evidence that, contrary to Krashen's (1993) continued claims, instruction contributes to both acquired knowledge as well as learned knowledge. There is also increasing evidence that naturalistic learning in the classroom... does not typically result in high levels of grammatical competence. In short, there is now convincing indirect and direct evidence to support the teaching of grammar. (pp. 85-86)

이와 같이 자연주의 학습으로 언어의 문법능력이 가능하다는 Krashen의 주장과 달리 높은 수준의 문법적인 능력은 문법교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Ellis(2006)는 주장하고 있다.

Azar(2007)는 이론가나 학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토대로 문법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문법기반교수(GBT: Grammar-Based Teaching)가 실제로 학습자의 언어습득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언어사용을 위해서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모두 문법적인 개념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법의 개념교육을 받은 기초가 있는 학생은 "I am boring in class"와 "I am bored in class"라는 문장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첫 번째 문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언어교육에 있어서 자연주의 운동의 쇠퇴와 함께, 특히 제2언어를 가르칠 때에는 의사소통 교육과 더불어 문법중심의 교육이 통합된 균형 있는 프로그램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능숙도(fluecy)와 정확도(accuracy), 문장과 연관된 담화 수준 등 모든 기능을 망라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Larsen-Freeman(2003)은 제2언어의 다섯 번째 기술을 어법에 맞는 것(grammaring)으로 보고 있다. 어법에 맞는 것이란 학습자가 문법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어가 사용되는 곳에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실 밖에서 효과적으로 문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문법연습활동의 교수를 통해서 언어습득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고, 의미있는 문법구조를 적합하게 익히는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이다. 또한 Thornbury(1999)는 문법교육을 받지 않은 학습자는 문법지도를 받은 학습자보다 더 빨리 언어능력이 화석화(fossilization)되므로, 명시적인 문법학습 없이는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Fortune(1992)은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문법을 강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어진 문법 문제를 과제로 풀게 하였다. 귀납적 접근법과 연역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유형의 문법 문제를 학습한 후 학습자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설문지와 그룹 인터뷰의 결과 학습자들의 94%가 제2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법교육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견해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에서 그의 연구는 문법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상호간 의사전달은 언어에 작용하고 있는 문장구조와 일련의 문법규칙 등이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모델에 문법적인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anale & Swain, 1980). 의사소통 언어교육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발화의 언어학적인 정확성보다 형태에 기초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언어학적이고 문법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어 발표나 연설에서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한국 영어 교육에서는 형태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법중심보다 의미중심의 의사전달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 둘을 통합하는 교육이 최적의 학습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중심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토플이나 토익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의 규칙을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태와 의미가 통합된 방법으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영문법은 지루하고, 흥미가 떨어지며, 대화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소통 교육에서도 문법에 대한 지식이 낮으면 영어의 능숙도가 향상되지 않고 높은 수준의 구사력에

이르지 못한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언어 수업에서 의미와 문법중심의 교육이 균형을 이룬 방법으로 목표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Azar, 2007; Canale & Swain, 1980; Larsen-Freeman, 2003).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조사는 2010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6월 초에 이루어졌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은 영어능력과 전공이 다양하고 교양영어 필수과목으로 영문법을 이수하지 않은 1학년 학생(통제집단)과 1학년 때 영문법을 이수한 2학년 학생(실험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1학년 학생들은 영문법 수업이 폐지되어 2010년 1학기 현재 Lab1을 이수하고 있다. 2학년 학생들은 2009년 1학기에 한 반의 수강자가 40~45명 정도로 영문법을 한국어로 들었다. 그 해 2학기에 Lab1을 듣고 2010년 1학기 현재 Lab2를 이수하고 있다. Lab1과 Lab2는 듣기중심의 영어교육을 할 때 정해진 강좌명이었다. 그러나 강좌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는 1·2학년 모두 한 반에 20명 이하로 대부분 원어민 교수에게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말하기·듣기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결과에 사용된 응답자는 총 199명으로 이들 중 통제집단이 102명, 실험집단이 97명이었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 나이는 만 19.6세(SD = 1.4)로 통제집단의 평균 나이는 만 18.9세(SD = 1.0), 실험집단의 평균 나이는 만 20.2세(SD = 1.4)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 83명(41.7%)이 남자, 116명(58.3%)이 여자였으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성별 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통제집단 (N=102)	실험집단 (N=97)	전체 (N=199)
나이 (M, (SD))	18.9 (1.0)	20.2 (1.4)	19.6 (1.4)
성별			
남 (N, (%))	40 (39.2%)	43 (44.3%)	83 (41.7%)
여 (N, (%))	62 (60.8%)	54 (55.7%)	116 (58.3%)
평균영어공부시간 (M, (SD))	5.4 (4.5)	4.8 (4.9)	5.1 (4.7)
영어사용국가거주경험자 (N, (%))	4 (4.0%)	6 (6.3%)	10 (5.1%)

수능영어등급 (N, (%))			
1~3 등급	20 (19.6%)	17 (17.5%)	37 (18.6%)
4~6 등급	54 (52.9%)	51 (52.6%)	105 (52.8%)
7~9 등급	9 (8.8%)	6 (6.2%)	15 (7.5%)
수능보지 않음	12 (11.8%)	15 (15.5%)	27 (13.6%)
무응답	7 (6.9%)	8 (8.2%)	15 (7.5%)

응답자들의 평균영어공부시간은 일주일에 5.1시간($SD = 4.7$)이었으며, 통제집단은 일주일에 평균 5.4시간($SD = 4.5$), 실험집단은 일주일에 평균 4.8시간($SD = 4.9$) 영어공부를 한다고 대답했다. 영어사용국가거주경험자는 10명(5.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영어수준 평가를 위해 수능시험에서의 영어과목 등급을 질문한 결과,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7명(18.6%), '4등급에서 6등급 사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5명(52.8%), '7등급에서 9등급 사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명(7.5%), '수능시험을 보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7명(13.6%)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응답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교육환경과 과정

영문법 과목을 들은 실험집단은 필수과목으로 공통교재가 있었고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법의 모든 영역을 가르칠 것을 요구했으나 실제적으로 수업시간에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웠다.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한번씩 연속강의로 되어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가르쳐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교사중심의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는 과제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교재는 문어(written language)만 제시되어 있었고 연역적 접근법으로 문법규칙을 먼저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하여 형태에 초점을 둔 자료들이었다. 그러한 텍스트는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의사소통 영어학습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교재가 영문법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교재의 신중한 선택도 중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문법내용으로는 시제, 명사의 관사, 종속절, 관계대명사 등으로 전통적인 문법책에서 제시되는 내용이였다.

통제집단이 수강하는 Lab1은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공통교재가 있고 교재에는 영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문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분반된 모든 강좌가 한 개의 학습지도안을 공유하였는데 학습목표가 말

하기와 듣기 능력의 향상이므로 교재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웠다. 일 주일에 2시간 연속 강의로 각 장에 나오는 주제에 대하여 한 명의 친구와 말하거나 그룹으로 말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과제로는 다음 시간에 말해야 할 주제를 써 오게 하여 수업시간에 의사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영어에 자신감이 결여된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도와 참여도가 낮았고 영어과목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였다. 실험집단은 La2도 Lab1과 환경이 같았고 같은 씨리즈의 교재이면서 수준만 한 단계 높은 것을 채택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과 목적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배경사항이 9개 항목으로 시작되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항목으로는 첫째,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태도(설문 A)를 묻는 10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연구의 핵심인 영문법이라는 특정한 영어능력도 큰 틀에서 보면 영어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및 효과(설문 B)를 조사하는 10개 문항으로 영문법의 필요성과 영어의 다른 기술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등과 관련된 항목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신의 영문법 능력(설문 C) 8개 항목으로 배우려는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질문(설문 D)으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질문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통제집단은 영문법수업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문법 수업을 수강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6개의 질문이었으며, 실험집단은 7개 항목으로 영문법 수업을 수강한 후의 결과를 담은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영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게 되면 영문법 과목의 논의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의 영문법 과목 폐지에 대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존의 영문법 수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학생들의 태도나 의견이 영문법 과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영문법 과목 개설 및 폐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이수했던 영문법 과목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만족도가 낮으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문법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높다면 더 나은 방법론을 연구해 영문법 과목의 개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이용했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영어에 대한 일반적 태도 및 영문법에 대한 태도, 영문법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 영문법 수강 전후 학년 간 영문법 수업에 대한 태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t-test를 시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어에 대한 일반적 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한 영어에 대한 일반적 태도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 중 3점은 ‘보통이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표 2
영어에 대한 일반적 태도 비교

항목	M (SD)		t	p
	통제집단	실험집단		
1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3.17(1.07)	2.74(1.21)	6.87	0.00**
2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2.24(0.79)	2.05(0.91)	2.27	0.13
3 영어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4.60(0.61)	4.56(0.61)	0.22	0.63
4 영어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	3.53(1.08)	3.54(1.14)	0.00	0.96
5 영어에 흥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2.55(1.01)	2.86(1.13)	4.05	0.04*
6 요즈음 영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3.03(1.04)	3.47(1.15)	8.10	0.00**

* $p < 0.05$, ** $p < 0.01$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된 6개의 항목들 중 ‘영어공부를 좋아한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 통제집단은 평균 3.17점($SD = 1.07$), 실험집단은 평균 2.74점($SD = 1.21$)으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t = 6.87, p = 0.00$). ‘영어에 흥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통제집단은 평균 2.55점($SD = 1.01$), 실험집단은 평균 2.86점($SD = 1.13$)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t = 4.05, p = 0.04$). 즉,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영어에 흥미가 있고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즈음 영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통제집단은 평균 3.03점($SD = 1.04$), 실험집단은 평균 3.47점($SD = 1.15$)으로 응답하였다($t = 8.10, p = 0.00$).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요즈음 영어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세 항목들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응답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응답했다(2.24점(SD = 0.79), 2.05점(SD = 0.91)). 또한 두 집단 모두 ‘영어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항목에 각각 평균 4.60점(SD = 0.61), 4.56점(SD = 0.61)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영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통제집단은 평균 3.53점(SD = 1.08), 실험집단은 평균 3.54점(SD = 1.14)을 나타내어 자신들이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영문법에 대한 태도 및 효과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중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영문법에 대한 태도 및 효과를 측정된 10개의 항목들에서 표 3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영문법에 대한 태도 및 효과 비교

항목	M (SD)		t	p
	통제집단	실험집단		
1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2.33(0.96)	2.35(1.03)	0.01	0.90
2 영문법을 배우는 것은 쉽다	2.00(0.83)	2.20(1.01)	2.22	0.13
태도 3 말하기·듣기 위주의 수업이 더 흥미 있다	3.79(0.89)	3.56(1.14)	2.67	0.10
4 문법을 배우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2.08(0.84)	2.05(0.83)	0.05	0.82
5 문법은 지루하다	3.36(1.12)	3.27(1.00)	0.39	0.53
6 영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교육이 필요하다	3.60(0.88)	3.75(0.83)	1.61	0.20
7 문법을 잘 알면 토익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	3.81(0.81)	3.94(0.86)	1.09	0.29
효과 8 문법을 잘 알면 영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65(0.99)	3.77(0.91)	0.86	0.35
9 말하기·듣기 위주의 수업이 영문법 수업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3.51(1.10)	3.34(1.17)	1.10	0.29
10 교양영어 과목에서 영문법 과목이 꼭 필요하다	3.25(0.90)	3.21(0.80)	0.16	0.69

영문법에 대한 태도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항목에 각각 평균 2.33점($SD = 0.96$)과 2.35점($SD = 1.03$)으로, 좋아하지 않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영문법을 배우는 것이 쉽다'라는 항목에 통제집단은 평균 2.00점($SD = 0.83$), 실험집단은 평균 2.20점($SD = 1.01$)으로 쉽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말하기·듣기 위주의 수업이 영문법 수업보다 더 흥미 있다고 응답하였다 (3.79점($SD = 0.89$), 3.56점($SD = 1.14$)). 영문법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배우는 것은 시간낭비이다'라는 항목에 통제집단은 평균 2.08점($SD = 0.84$), 실험집단은 평균 2.05점($SD = 0.83$)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영문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법은 지루하다'라는 항목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각각 평균 3.36점($SD = 1.12$), 3.27점($SD = 1.00$)을 나타내 문법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문법에 대한 효과 항목들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영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교육이 필요하며(3.60점 ($SD = 0.88$), 3.75점($SD = 0.83$)), 문법을 잘 알면 토익점수가 향상되고(3.81점 ($SD = 0.81$), 3.94점($SD = 0.86$)) 영어의 다른 영역,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3.65점($SD = 0.99$), 3.77점($SD = 0.91$)).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말하기 듣기 위주의 수업이 영문법 수업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본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3.51점($SD = 1.10$), 3.34점($SD = 1.17$)). 의사전달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영어과목에서 영문법 과목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3.25점($SD = 0.90$), 3.21점($SD = 0.80$)).

표 3에서 보듯이 두 집단 모두 일반적으로 영문법을 선호하지 않고 쉽지 않다고 느끼지만 영문법 교육이 필요하고 영어의 다른 기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영문법이 어렵고 지루하지만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문법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실험집단이 영문법 수업을 통해 영문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신의 영문법능력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중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영문법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8개의 항목들에서 표 4에서 나타나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지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잘 알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2.12점($SD = 0.81$)과 2.09점($SD = 0.76$)으로 자신의 문법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문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서도 역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2.35점($SD = 0.93$), 2.39점($SD = 0.97$)). 즉, 응답자들의 문법능력이 높다하더라도 문법과 커

뮤니케이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법을 몰라도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통제집단은 평균 2.60(SD = 0.95), 실험집단은 평균 2.57점(SD = 0.97)을 나타내 두 집단 모두 이 항목에 대해 문법능력과 자신감과는 연관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4
자신의 영문법능력 비교

항목	M (SD)		t	p
	통제집단	실험집단		
1 문법지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잘 알고 있다	2.12(0.81)	2.09(0.76)	0.04	0.82
2 문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2.35(0.93)	2.39(0.97)	0.08	0.77
3 문법을 잘 아는 것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2.98(1.08)	2.92(1.19)	0.15	0.69
4 문법을 몰라도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2.60(0.95)	2.57(0.97)	0.05	0.82
5 문법규칙을 분명하게 알 때 자신감이 생긴다	3.33(0.95)	3.24(1.09)	0.43	0.51
6 문법을 아는 것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다	2.58(0.90)	2.71(1.07)	0.89	0.34
7 문법지식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싶다	3.52(0.92)	3.56(1.17)	0.06	0.80
8 영문법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	3.38(0.99)	3.10(1.15)	3.33	0.06

또한 ‘문법을 아는 것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다’라는 항목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58점(SD = 0.90), 2.71점(SD = 1.07)). ‘문법을 잘 아는 것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3점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 이 문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2.98점(SD = 1.08), 2.92점(SD = 1.19)).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문법규칙을 분명하게 알 때 자신감이 생긴다(3.33점(SD = 0.95), 3.24점(SD = 1.09)),’ ‘문법지식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싶다(3.52점(SD = 0.92), 3.56점(SD = 1.17)),’ ‘영문법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 (3.38점(SD = 0.99), 3.10점(SD = 1.15))’는 항목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본 조사에서 학생들은 문법이 의사전달 능력과 밀접한 관계(항목 2와 3)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교육에서 의미중심의 의사소통 방법에만 중점을 두고 문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목표어의 학습자들이 높은 수준의 정확한 문장 구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Nassaji & Fotos, 2004). 대부분의 응답자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높지 않지만 현재의 영문법능력이 부족하고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문법규칙을 배우고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한

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문법 수업에 대한 태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중 통제집단은 영문법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집단은 영문법 수업을 수강한 후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통제집단에게는 영문법 수업을 수강했을 경우 기대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실험집단에게는 영문법 수업을 수강한 후 나타난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문법 수강 전(통제집단) 후(실험집단) 비교

항목	M (SD)		t	P
	통제집단	실험집단		
1 영문법 수업이 문법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되었다)	3.78(0.74)	2.82(1.02)	58.08	0.00**
2 영문법 수업을 통해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생길 것이다(생겼다)	3.07(0.85)	2.48(1.03)	18.90	0.00**
3 영어문장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되었다)	3.82(0.68)	2.94(0.98)	54.66	0.00**
4 영어의 다른 기술들(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되었다)	3.53(0.80)	2.75(0.99)	37.06	0.00**
5 토익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되었다)	3.82(0.69)	2.57(1.04)	101.31	0.00**
6 앞으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들었다)	3.49(0.87)	3.55(1.19)	0.14	0.70

**p < 0.01

표 5를 보면, ‘영문법 수업이 문법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항목에 통제집단은 평균 3.78점(SD = 0.74)의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실험집단은 ‘영문법 수업이 문법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항목에 평균 2.82점(SD = 1.02)을 보여, 평균 3점에 해당하는 ‘보통이다’라는 응답보다 낮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 = 58.08, p = 0.00). 또한 ‘영문법 수업을 통해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생길 것이다’라는 항목에서 통제집단은 평균 3.07점(SD = 0.68), 즉, 3점 ‘보통이다’ 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반면, 실험집단은 영문법 수업을 수강한 후 ‘영문법 수업을 통해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생겼다’라는 항목에 평균 2.48점(SD = 1.03)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t = 18.90, p = 0.00). 영문법 수업 수강이 ‘영어문장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항목에 통제집단은 평균 3.83점(SD = 0.68)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실험집단은 평균 2.94점(SD = 0.98)으로 영문법 수업 수강이 ‘영어문장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항목에 3점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t = 54.66, p = 0.00$). 통제집단은 영문법 수업을 수강한다면 영어의 다른 기술들(읽기, 쓰기, 말하기 등)과 토익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항목에 각각 평균 3.53점($SD = 0.80$), 3.82점($SD = 0.69$)을 나타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균 2.75점($SD = 0.99$), 2.57점($SD = 1.04$)을 나타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t = 37.06, p = 0.00, t = 101.31, p = 0.00$).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의 경우 영문법 수업을 수강한다면 '앞으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라는 항목에 평균 3.49점($SD = 0.87$)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영문법 수업 수강 후 '앞으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항목에 평균 3.55점($SD = 1.19$)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실험집단의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0.14, p = 0.70$).

표 5에서 나타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통제집단은 영문법 수업이 문법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영문법을 이수한 실험집단은 문법습득의 성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에서 실험집단은 수강 후 열심히 영어를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문법교육이 기대만큼 효과는 없으나 필요성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험집단의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영문법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영문법 과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 개인의 노력도 미흡했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영문법을 담당한 교수에게도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논의

지금까지 논의되었듯이 실험집단이 영문법 수업 후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와 교육적 효과가 없었지만 영문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업을 이수할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통제집단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개선된 영문법 수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효율적인 문법수업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교수에서 크게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이 있다. 연역적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문법-번역과 관련이 많은데 설명이 먼저 제시되어 있어 요점을 바로 설명하니, 예문이 먼저 제시되어 규칙을 찾아내는 귀납적 접근법보다 더 간단히 빨리 설명될 수 있어 시간 소비를 막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수중심의 수업이 되고 학습자들이 문법 용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경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귀납적 접근법은 발견학습(discovery learning)으로서 예문을 먼저 제시한 다음 이를 통해 규칙을 도출해내

는 방법이다. 학습자들이 그룹활동으로 예문을 보고 규칙을 유추하게 하면 학습자 중심(learner-centred paradigm)의 교육이 되어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Nunan, 1998). 지금까지의 영문법교수가 교수중심의 연역적 방법이었다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는 귀납적 방법을 권장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앞 장에서 논의 되었듯이 학생들은 문법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흥미가 낮으므로 관심을 유발시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Senior(2006)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초급단계에 있는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처음부터 문법교육보다는 기본이 되는 의사전달 능력부터 개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문법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문법적인 정확성을 주장하기보다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 입문(a threshold of communicative ability)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사전달의 기본단계가 지난 후 문장의 정확도와 능숙도를 위하여 문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 자연주의 운동이 사라질 때 문법교육이 학자들이 의하여 다시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 형태와 의미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특히 제2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문법교육이 의사소통 언어교육과 융합시켜 교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의미 중심의 유창성 습득이 형태중심의 정확성보다 더 관심을 보이지만 Mulroy(2003)는 자연주의 운동이 한창일 때 미국 학교 교과과정이 문법을 소홀히 한 결과 학생들의 영어 사용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연구결과로 뒷받침하여 보여주었다.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문장들이 단락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쉽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문법과목이 완전히 형태중심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지루하고 흥미도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실제 생활에서 쓰는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지금의 세계화 분위기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도 문장의 정확한 지식과 구조의 이해를 요하는 테스트의 결과가 요구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과목을 의미와 통합된 형태중심의 영문법 과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Sysoyev(1999)는 ESL 학생들에게 형태와 의미를 합한 통합적인 영문법교육방법을 3단계로 실시해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3단계는 (1) 탐색(exploration), (2) 설명(explanation) (3) 표현(expression)을 말하며, 이는 EEE 방법으로 불린다. 첫 단계인 탐색은 귀납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에게 특정문법의 규칙을 보여주는 문장을 주고 그룹으로 토론하여 그 패턴을 찾도록 한다.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 인지학습을 유도하며 필요할 때 교수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규칙을 찾아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언어에 대해 탐색하여 이해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주면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그들이 습득한 지식은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학습의 두 번째 단계인 설명은 학생들이 탐색할 때 사용한 예문들에서 발견한 패턴이나 결과를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교수는 탐색할 때 쓰인 예문과 규칙을 연결시켜 명료한 규칙을 설명해야 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내용중심(content-based)의 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규칙을 명확히 알 때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표현은 학생들이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과제에서 서로 의미 있는 발화를 산출해보는 것이다. 의미중심의 과제에서 형태를 연습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목표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실제로 연습하고 적용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 스스로가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학습자 중심의 방법론을 영문법 수업에 이용해보는 것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흥미 있고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영문법을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인터넷상에서의 학습은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인 면이 있다(Harasim, 1989; Sauro, 2009). 학습자 중심의 자율학습 능력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hite, 1995). 교수가 적절한 내용과 관련된 연습문제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유용한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하겠다.

V. 결론

오늘날 외국어 분야에서의 문법교육의 필요성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연구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Azar, 2007; Ellis, 2002a, 2002b; Norris & Ortega, 2000). 문법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습자가 언어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즉, 언어는 우리가 말하고 듣고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가르치면 이 원리에 따라 의사전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에게 영문법을 가르칠 때, 문법구조를 빠른 시일에 내재화하거나 습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고, 문법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Nassaji & Fotos, 2004). 문법교육은 목표어에 대한 기초부터 쌓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영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 시행착오를 거치고 동기유발을 통해 제2언어로서의 영어를 이해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과 의미 만들기를 통해 가장 잘 성취될 것이며 문법은 이들 의미를 어법에 맞게 구조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에서 형태중심의 문법 과목이 폐지되고 의사소통을

위한 Lab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영문법 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는 실험집단이나 영문법을 듣지 않은 통제집단 모두가 문법지식이 부족하고 배우고 싶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통제집단은 영문법 수업을 들으면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실험집단은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영문법 과목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실험집단의 경우 영문법 수업의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영문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만족할 만큼 영어가 향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꾸준히 하려는 학습에 대한 열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의사소통언어교수법의 도입과 함께 말하기나 듣기에 중점을 둔 영어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문법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미가 형태보다 우선이고 유창함이 정확도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문법강좌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학습자들은 영문법에 대한 흥미는 높지 않지만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강할 의사가 있으므로 영문법 강좌를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 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더 효과적인 영문법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법형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학습자의 의사소통이 기초적인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zar, B. (2007). Grammar-based teaching: A practitioner's perspective. *TESL-EJ*, 11(2). Retrieved August 1,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tesl-ej.org/wordpress/issues/volume11/ej42/ej42a1/>.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i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 *Applied Linguistics*, 1, 1-47.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Ellis, R. (2002a). Grammar teaching: Practice or consciousness-raising? In J. C. Richards & W.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pp. 167-1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 R. (2002b). The place of grammar instruction in the second/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 E. Hinkel & S. Fotos (Eds.), *New perspectives on grammar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pp. 14-2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Ellis, R. (2006). Current issues in the teaching of grammar: An SLA perspective. *TESOL Quarterly*, 40, 83-107.

- Fortune, A. (1992). Self-study grammar practice: Learners' views and preferences. *ELT Journal*, 46(2), 160-171.
- Harasim, L. (1989). Online education: A new domain. In R. Mason & T. Kaye (Eds.), *Mindweave: Computers, communications, and distance education*. Oxford: Pergamon Press. Retrieved August 1,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bdp.it/rete/im/harasim1.htm>.
- Krashen, S. D.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 Krashen, S. D. (1993). Teaching issues: Formal grammar instruction. *TESOL Quarterly*, 27(4), 722-725.
- Larsen-Freeman, D. (2003).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New York: Thomson Heinle.
- Lightbown, P. M., & Spada, N. (1999).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lroy, D. (2003). *The war against grammar*. Portsmouth, NH: Boynton.
- Nassaji, H., & Fotos, S. (2004). Current developments in research on the teaching of grammar.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126-145.
- Norris, J., & Ortega, L. (2000). Effectiveness of L2 instruction: A research synthesis and quantitative meta-analysis. *Language Learning*, 50(3), 417-528.
- Nunan, D. (1998). *The learner-cent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uro, S. (2009). Computer-mediated corrective feedback and the development of L2 grammar.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3(1), 96-120.
- Senior, R. (2006). *The experience of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pherd, R. (2005). The naturalist fallacy and the demise of grammar instruction. *The Newsletter of the Core Knowledge Foundation*, 18(4), 1-13.
- Sysoyev, P. V. (1999). Integrative L2 grammar teaching: Exploration, explanation and expression. *The Internet TESL Journal*, 5(6). Retrieved January 2,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iteslj.org/Articles/Sysoyev-Integrative.html>.
- Thornbury, S. (1999). *How to teach grammar*. Larlow: Longman.
- White, C. (1995). Autonomy and strategy use in distance foreign language learning: Research findings. *System*, 23(2), 207-221.

부록

영문법 수업에 관한 태도와 견해

날짜: 2010년 월 일 <1,2학년용> 일련번호:

기본배경사항

1. 나이 만 세 2. 성별 1.남 2.여
3. 입학년도(학번) 4. 대학교 재학 학기 수 (이번 학기 포함)
5. 전공
6. 일주일에 약 몇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합니까? 시간
7. 몇 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셨습니다? 약 년
- 8-1. 영어사용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 8-2.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거주기간은 몇 년입니까? 년
- 9-1. 대학 입학 후 영어와 관련된 수업을 몇 개 수강하셨습니다?
- 9-2. 상기 영어와 관련된 수업들 중 몇 개의 수업이 영문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다음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숫자를 표기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A.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1.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2.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3.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하다.
4. 나는 영어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
5. 나는 영어에 흥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6. 요즘은 영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B. 영문법에 대한 태도 및 효과

1. 나는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2. 영문법을 배우는 것은 쉽다.
3. 말하기·듣기 위주의 수업이 더 흥미있다.
4. 문법을 배우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5. 문법은 지루하다.
6.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교육이 필요하다.
7. 문법을 잘 알면 토익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8. 문법을 잘 알면 영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9. 말하기·듣기 위주의 수업이 영문법 수업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10. 교양영어의 과목에서 영문법 과목이 꼭 필요하다.

C. 자신의 영문법능력

1. 문법지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잘 알고 있다.
2. 문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 문법을 잘 아는 것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4. 문법을 몰라도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5. 문법규칙을 분명하게 알 때 자신감이 생긴다.
6. 문법을 아는 것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다.
7. 나는 문법지식이 부족하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
8. 영문법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

D. 영문법을 한 학기 수강한다면 (1학년용)

1. 문법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영문법 수업을 통해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생길 것이다.
3. 영어 문장 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영어의 다른 기술들(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토익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앞으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D. 1학년 1학기에 영문법을 수강한 후 (2학년용)

1. 1학년 때 수강했던 ‘영문법의 이해’가 문법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2. 영문법 수업을 통해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생겼다.
3. 영어 문장 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4. 영어의 다른 기술들(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 도움이 되었다.
5. 토익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6. 앞으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 1학년 때 수강했던 ‘영문법의 이해’에서 받았던 학점은?

신희재

성결대학교 교양학부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00-10

Tel: 031-467-8920

Email:hjhashin@sungkyul.ac.kr

Received 15 December 2010

Revised 3 February 2011

Accepted 8 February 2011